

## 합리적 정책결정을 위한 경제성 평가 방법 (Introducing Economic Evaluation as a Policy Tool in Korea: Will Decision Makers get Quality Information? A Critical Review of Published Korean Economic Evaluations)

이건세<sup>1</sup>, Brouwer WBF<sup>2</sup>, 이상일<sup>3</sup>, 구혜원<sup>4</sup>

<sup>1</sup>건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sup>2</sup>Department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Erasmus University, Netherland, <sup>3</sup>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sup>4</sup>한국 노바티스

**서론:** 경제성 평가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위한 중요한 원칙임에 분명하며, 의약품 분야뿐 아니라 다양한 다른 의료기술의 평가에도 활용될 수 있는 도구이다. 경제성 평가 연구를 포함한 보건의료정책 연구를 의사결정자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연구의 과학적인 엄밀성이 일차적으로 중요한 요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경제성 평가 연구를 그 원칙과 방법론에 근거하여 평가함으로써, 향후 이런 연구들이 의사결정에 사용되기 위해 선결되어야 할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경제성 평가 방법론의 평가를 위한 자료의 수집은 MedRIC(<http://mediric.or.kr/>), RICH(<http://www.richis.org>), "Korean Scientific Information" (<http://kiss.kstudy.com/>)에서 하였다. 기존 연구 문헌에 대한 평가 기준(criteria)은 기존의 지침, 체크리스트, 다른 연구 등을 참고하여 개발하였다.

**결과:** 평가된 45개의 문헌에서 비용편익분석(CBA)은 14개, 비용효과분석(CEA)은 14개, cost per quality-adjusted life-year(QALY)로 제시된 비용편익분석(CUA)은 5개였다. 연구 설계에 있어서 무작위 임상시험(randomized clinical trial)과 같이 수행된 연구는 하나도 없었으며, 몇 가지 가정과 간단한 가상 코호트를 이용한 모델링 연구가 24개이었다. 연구의 결과(outcome)에 있어서 5개의 연구만이 lives saved years와 QALY를 사용하였으며 대부분의 연구는 골밀도, 혈압, 혈중지방농도와 같은 생리적인 변화, 일상생활능력(Activity of Daily Living)과 같은 기능적인 변화와 발견된 질병 건수, 예방된 질병건수와 같은 중간단계(intermediate)의 결과를 측정하였다.

**고찰:** 우리나라에서 기존에 수행된 경제성 평가는 연구는 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중재(intervention)를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적인 경제성 평가로 간주하기에는 연구 설계와 비용 추정에 있어 많은 제약점을 보이고 있다.

**결론:**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성 연구를 의사결정에 사용하기에는 아직 의문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즉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위한 정책적인 요구와 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

는 경제성 평가 연구의 현실적인 수준에는 아직 거리(gap)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이런 문제점은 출발점으로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성 평가를 위한 표준화 지침 개발, 경제성 평가를 위한 연구 인력의 교육 훈련, 의사결정에 경제성 평가의 활용, 정부와 보험자의 정책적인 관심과 지원, 국제적인 협력 증대와 같은 제도적인 개선과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성 평가는 의사결정에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